Proposing a Code of Ethics for Conservation Practice in Korea

Kim, Sun-Young[*] · Dinah Eastop
University of Southampton* · University of Southampton

Since the early 1970s, textile conservation in Korea has mainly involved treating textiles excavated from graves (chultoboksik). Assembled during a traditional funerary ritual, these textiles were preserved inside the coffin for as long as five hundred years.

Unlike many other countries, there is no nationally recognised professional code of conservation practice in Korea. A conservation code of ethics is proposed here to complement conservation practices implemented to preserve excavated textiles.

A code of ethics is a "written set of principles, guidelines or rules, formulated by or for a group of individuals or organisations with a common purpose, to improve the behaviour and public service functions provided by the group and its stature within the society it serves"(Lind 1987 cited in Pearson Online access 2004).

Analysis of past and present conservation practices via publications suggests that textile conservation in Korea started with recognition of the value of a new category of cultural heritage, i.e. excavated textiles. Research on conservation science has gradually grown, with the current focus being on scientific investigation to inform treatment.

Issues raised through conservation practices in Korea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 lack of clarity about the concept of conserv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or
- decision-making about which features of an object are to be preserved (significance assessment)
- reversibility of treatment
- application of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 excavation practices that support long-term preservation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after WWII (1945), new expectations are arising internally with national and social movements as well as externally via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e.g. UNESCO, ICOM, AIC, UKIC. The foundations of these organisations are written codes of ethics.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raising awareness and encouraging discussion of codes of ethics are imperative for enhancing textile conservation in Korea and helping to ensure that textile conservation in Korea is represented internationally.

As a professional predecessor, Hanna Jedrzejewska, a leading conservation philosopher said:

The "first question is: how can the matters of ethics start being considered? And the answer here will be: by asking questions" (Jedrzejewska 1976:15).

한국 직물 보존처리를 위한 보존 윤리규범의 제안

김선영[*] · Dinah Eastop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 ·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직물보존은 출토복식을 주로 다루어왔다. 전통 장례절차과정에서 모아 갖추어진 출토복식은 길게는 500년 가까이 관 속에서 보전되어 온 직물들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재 보존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문적 윤리규범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러 학술분야의 소중한 자료인 출토복식의 발전된 보존처리를 위한 보완책으로 보존처리의 윤리규범을 제안한다.

윤리규범(code of ethics)이란 "취지를 함께하는 단체나 조직의 동의 하에 글로 씌어진 일련의 원칙, 지침, 혹은 규정이며, 이는 그 단체의 행위나 업무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Lind 1987 cited in Pearson Online access 2004).

문헌을 통하여 직물 보존처리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한국의 직물보존은 출토복식에 대한 문화재가치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보존과학에 대한 연구가 점차 성장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 연구가 중점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출토복식 보존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존(conservation)의 개념과 보존전문인(conservator)의 역할
- 유물의 보존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중요평가-어떤 요소를 보존할 것인가?)
- 보존처리의 가역성 여부
- 전통공예기능을 응용한 보존처리
- 반영구적 보전을 돕기 위한 적합한 출토과정

한국 직물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존처리의 윤리규범이 바탕이 될 때에, 이들 논점에 관한 더욱 활발하고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내로는 문화재보전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하며, 보존전문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더욱 자주 언급되고 있다. 윤리규범은 보존전문인의 배양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외로는 2004년 ICOM SEOUL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문화재보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또한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국내에 알려진 주요한 국제 문화재 보존관련 기구들 (유네스코 UNESCO, 국제박물관회의 ICOM, 미국 보존협회 AIC, 영국 보존협회 UKIC)은 공통적으로 글로 씌어진 보존 윤리규범에 그 설립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윤리규범에 대한 인식을 돋우고 그에 관한 논의를 장려하는 것은 한국 직물보존처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국내에서만 알려졌던 한국 직물보존 분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규범은 어떻게 정립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저명한 보존학자 Hanna Jedrzejewska가 보존처리의 윤리규범의 중요성에 관한 저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장 처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윤리에 관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질문을 던짐으로서'이다."(Jedrzejewska 1976:15).